

서울역 공중 보행길 설계한 위니 마스 초등생들과 함께 광주 GD폴리 만든다



서석초등학생들이 그린 '내가 원하는 광주폴리'

“투명한 육교와 날씨가 따라 색이 변하는 대형 토끼인형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옆에 뭐든지 다 파는 문구점이랑 분수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바라는 광주 폴리의 모습은 어떤까. 광주 서석초등학생들이 'GD (Gwangju· Dutch) 폴리' 제작에 함께한다.



GD폴리 작가 위니 마스

설치 장소 서석초 정문 앞 확정 학생 40명 '원하는 폴리 그리기' 상상력 만발...제작에 반영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뷰폴리 이달말 완공...막바지 공사중 층장로 뺐뺐폴리는 일부 재시공

40여명이 참여한 '내가 원하는 GD폴리 그리기'를 마쳤다. 이날 출품된 그림은 상상력이 가득했다. 박태성 학생은 광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광주 추억방, 광주 전통음식점, 식물관찰실, 사랑로 가득 채운 러브룸(입장료 무료), 야외 피아노를 그렸다.
송아연 학생은 학교 앞에 서석역과 서석병원이 생기길 바랐다. 정문 앞에는 분수대가 있고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프리즘도 희망했다. 강아지 스티커를 이용한 김지훈 학생은 학교 앞을 놀이터로 만들었다.
현재 공인 형태 작품을 기획 중인 위니 마스는 학생 그림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로 설계에 따른 도로 재포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건축가가 공패가를 주제로 만든 '꿈집'은 지난해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인근에 설치됐다.

서석 정문 앞에서 장동 로터리 인근으로 옮겨지며 다시 서석초 앞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단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차례 열어 최종 승낙을 얻어냈다. 작품 설치가 늦어진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서석초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학생



'뷰폴리' 조감도

'뷰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옥상 한편에는 가로 20m·세로 5m 크기 트라이비전(trivision) 입체 작품이 들어선다. 파랑·빨강·하늘색이 칠해진 삼각기둥을 원하는 대로 돌려볼 수 있는 구조다. 광주 정신을 표현한 영어 'CHANGE'가 새겨진다.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광주 폴리 안내소(건물 6층)를 조성한다.
한편, 전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된 '뺨뺨폴리'(김찬중 김찬중 건축가·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 중 일부는 재시공에 들어간다. 이 작품은 현재 층장로 1~5가에 4개 작품(문화전당 인근, 연다방, 달콤커피, 거북이안경점)이 설치돼 있다. 전하부스 형태로, 문을 열면 움직임에 반응하는 LED조명과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지만 달콤커피 인근 작품은 너무 구석진 곳에 자리해 눈에 띄지 않고, 그외 작품도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피아니스트 윤상아 귀국독주회

2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윤상아 귀국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윤씨는 전남예고를 거쳐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를 실기 수석 입학·졸업했으며 이후 독일 마인츠 국립 음대 석사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 점수로 졸업했다. 독일 만하임, 프랑크 프루트 등에서 초청 연주 및 독주회, 듀오 공연 등을 펼친 그녀는 귀국 후 현재 전남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또 광주 피아노듀오협회, 목포 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공연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소나타 6번 F장조', 리스트의 '발라드 2번' 등이며 마지막 곡은 아르헨티나의 대표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작품을 골랐다. '높은 목동', '우아한 소녀의 춤', '카우보이의 춤'으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춤곡 op.2'다. 전석 초대. 문의 010-8753-91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페라 그룹 '트루바'의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

광주문예회관 24일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5월 공연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5월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 초대손님은 팝페라 그룹 '트루바(Troubad)'로 감의와 공연이 어우러진 공연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를 선사한다. 트루바는 프랑스어 '트루바두르(Troubadr)'의 약자로 12세기 남부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음악시인'을 뜻한다.
테너 박정일·고원석, 베이스 김경범으로 구성된 남성 3인조 클래식 보컬 앙상블 팀 '트루바'는 정통 클래식부터 가요, 재즈, 동요, CCM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들과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그룹이다.
레퍼토리는 팝페라 라틴메들리 '베사메 무초', '케사스 케사스 케사스', '카루소',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스페인 가곡 '그라나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Climb every Mountain', 가요 '무인도', '이차선 다리', '난 남자다', '사랑' 등이다.
트루바는 소외된 가는 클래식 음악을 알리기 위해 감의형 콘서트를 기획했으며 음악극, 시리즈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613-8353, 8237. /김미은기자 mekim@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자원봉사 단역 모집...27일 촬영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감독 박기복) 제작사(주) 무당벌레 필름이 1980년 5·18 금남로 군중시위를 남겨두고 광주·전남 단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오는 27일 화순군 능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촬영하는 군중 씬은 단역 1000명이 참여해 계엄군의 광주시민 폭행과 학살 장면을 담는다.
이날 촬영은 그동안 출연했던 주·조연 배우들이 총 출동해 계엄군의 만행에 저항하는 광주 민

주화 열망을 표현한다.
주연배우 김꽃비·김부선·전수현·김재희를 비롯해 이한위, 임승규 등 배우들이 나선다. 이후 골목길, 성당, 총장로, 5·18 국립묘지터 이어지는 중요한 장면으로, 제작진은 모든 장비와 인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하다. 이메일 또는 전화(061-373-0371)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www.film518.com) 확인.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